

‘AI 산업융합’ 광주전남미래비전 4차 포럼 성황

“정책 발굴·제안” 지난해 11월 발족
이흥노 GIST 교수 등 4명 주제발표
기술 동향·산업 응용·전략 등 조망

광주전남미래비전이 ‘인공지능산업융합,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4차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일 광주전남미래비전에 따르면 지난해 29일 엠에스엘㈜ 1층에서 ‘인공지능(AI) 산업융합,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4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심도 있게 조망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AI 혁신 사례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광주전남미래비전은 지역 산업 발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정책을 발굴·제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된 모임이다.



광주전남미래비전은 지난해 29일 오후 엠에스엘(주) 1층에서 ‘인공지능(AI) 산업융합,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4차 포럼을 개최했으며, 포럼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미래비전 제공>

4차 포럼은 문승현 공동대표의 개회와 사회로 시작돼 AI 기술 동향, 산업 응용, 실증 중심의 AI 거점 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AI의 기술동향과 블록체인의 연

계’를 주제로 “AI의 발전이 대중의 지식 활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전제했다 뒤 “궁극적으로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은 개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맞춤형 AI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개인의 지식 자산화, 디지털 주권 확보,

새로운 경제 활동 창출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조만영 가온플랫폼 대표는 ‘AI산업응용: 에너지 솔루션’ 주제 발표에서 “AI가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운전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우영 씨리랩 의장은 ‘Vision AI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Vision AI 기술의 산업 응용과 성장 가능성을 소개하며 “Vision Language Model(LVM)을 중심으로 한 멀티모달 AI가 영상 콘텐츠를 인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용현 한국광기술원 AI에너지연구센터장은 실증 중심의 AI 전략을 제시하며 “국가 AI 실증밸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마무리된 이번 포럼은 AI 기술과 실증 기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광주전남미래비전은 앞으로도 AI 기반 지역 산업 혁신에 기여할 계획이다. /주성학기자



광주매일신문,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NIE 2차 교육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지난날 29일 광주 광산구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신문 만들기 실기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차 순회교육 때 배웠던 기사의 특성과 기사 쓰기 실제 사례들을 신문 편집 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법을 익혔으며, 육하원칙에 따라 기사 쓰는 법도 알아봤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주원(수문초 4)·황은지(수문초 3)·조하음(수문초 3) 학생은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목과 사진을 넣어 보기도 했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도,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기자



목포해수청, 가거도등대 타임캡슐 20년만에 개봉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제30회 바다의 날을 맞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등대에서 타임캡슐 개봉행사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태환 청장을 비롯해 퇴직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타임캡슐 개봉식과 함께 사연 낭독, 기록물 전달 등이 이뤄졌다.

개봉된 타임캡슐은 지난 2005년 5월31일 제1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가거도등대 앞에 매설된 것으로, 당시 근무자와 관계자들이 바다에 담은 회랑의 메시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업무 자료 등 총 186건의 기록물이 담겨 있었다.

기록물은 주소지 확인을 통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되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일부 자료는 국립등대박물관에 이관될 예정이다.

김태환 목포해수청장은 “가거도등대는 119년간 우리나라 끝자락에서 수많은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해온 상징적인 장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로 나아갈 세로를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 바람과 소망이 이뤄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목포=정혜선기자

여수경찰, ‘모범 청소년·선도 유공자’ 포상

여수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최근 경찰서 화합마루에서 모범 청소년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바른 품성과 행동으로 귀감이 된 청소년들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식은 여수교육지원청, 청소년육성회, 여수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총 30명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모범 청소년 부문에서는 학업 성취·선행·봉사 등에서 뛰어난 활동을 보인 학생들이, 청소년 선도·보호 부문에서는 경찰관, 청소년 지도자, 상담 전문가, 교육 관계자 등이 선정됐다.

박규석 여수경찰서장은 “지역사회의 협력해 청소년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보문복지재단, 보호관찰 청소년에 생계비 등 지원

보문복지재단은 지난날 29일 광주보호관찰소와 함께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 물품과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온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학업 지속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정영현 이사장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간 청소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번 지원이 단순한 격려를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4월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에 1억5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보호대상 아동과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장학물품 및 긴급생계비 지원은 해당 후원금의 실제 집행 사례다.

한편 설립자 동곡(東谷) 정형래 선생의 뜻을 이어받은 보문복지재단은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광주비엔날레, 이탈리아문화원 등 후원을 통해 문화복지 실현에도 힘써왔으며 현재까지 총 11억8천500만원 규모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최명진기자

‘국고예산 9조’ 이끈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임

박창환 제13대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지난날 30일 가족과 도청 직원의 환송 속에 이임식을 갖고 3년5개월간의 부지사 재임을 마무리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 부지사는 제1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정책상황팀장, 주미국제사관 재경참사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재정 분야 전문가다.

광양 출신으로 민선 8기 출범을 앞둔 2022년 1월3일 김영록 전남지사의 부름을 받아 전남도 정부부지사로 취임했다. 이후 경제부지사로써 도정의 핵심 재정·경제 정책을 이끌었다.

기재부 출신으로 예산통·답게 박 부지사는 취임 직후 ‘목포역 노후 역사 개량사업’을 비롯한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국고 확보 활동에 나서 전남도 국고 예산이 연간 9조원을 넘어서도록 이끄는 핵심 역할을 했다. 전남의 미래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든든한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창환 부지사는 이임사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 중 전남도와 함께한 3년5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선택이었다”며 “도청 가족이 보내준 따뜻한 응원과 지지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전남도의 이름을 빛내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김재정기자



市교육청-광주지법, ‘1학교 1법관’ 진로 멘토링

광주시교육청은 1일 “지난날 29일 광주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과 ‘1학교 1법관 진로 멘토링’ 체결식을 갖고 진로 멘토링과 연계된 모의재판 경연대회 추진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1학교 1법관 진로 멘토링’은 시교육청과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진로 교육 사업이다.

올해는 현직 법관 15명이 참여해 15개 학교와 1대1 매칭 방식으로 결연을 맺고 연말까지 법률 분야 진로를 꿈꾸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6월부터 법관이 학교를 찾거나 학생이 법원을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학생 선발과 운영을, 법원은 법정 등 경연장



소 제공, 현직 법관의 심사위원 참여 등을 맡아 하반기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속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미기자

‘6월의 5·18민주유공자’ 故 김종완씨



6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고(故) 김종완(사진)씨가 선정됐다.

1일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김씨는 1932년 11월13일생으로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1970년 긴급조치 9호 위반,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사건 연루 등으로 총 5차례에 걸쳐 4년8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민주현정연구회, 민주화추진협의회, 민주인권연구회를 창립했으며 제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2013년 별세했다.

5·18민주묘지 관리소 관계자는 “故 김종완씨는 제1묘역 8구역 27번에 잠들어 계신다”며 “앞으로도 열려있는 국립묘지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동강대, 만학도·유학생 등 홍보대사 위촉

동강대학교는 1일 “지난날 29일 대학 본관 1층 장원홀에서 2025학년도 학교를 알릴 남녀 홍보대사 10명을 선발, 60대 만학도와 외국인 유학생 등 홍보대사 선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임명장을 받은 홍보대사는 ▲간호학과 한동욱(2년)·김지후(여·1년) ▲군사학과 김가은(여) 안지완(이상 1년) ▲미디어콘텐츠과 임채만(2년) ▲사회복지과 서두리(여·2년) ▲유아교육학과 문은빈(여·1년) ▲임상병리학과 박시현(여·1년) ▲글로벌의식조리제빵과 황티쓰영(여) 찬반마임(이상 1년) 등 10명이다.

이번 홍보대사 가운데 임채만씨는 무등난타 명인으로 24학년도 미디어콘텐츠과 신입생이 됐고 베트남 출신인 황티쓰영 찬반마임씨는 지난해 한국어학당 연수생으로 올해 글로벌의식조리제빵과에 입학했다.

동강대 홍보대사 10명은 앞으로 교내 CS(Customer Satisfaction : 고객만족)센터에서 기본 매너 교육 등을 받고 올 한해 동강대의 대표 얼굴로 활동하게 된다. /김다미기자



광주 남부경찰,보이스피싱예방은행원표창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신속한 판단과 빠른 신고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 광주봉선동지점 직원 A씨는 지난날 29일 한 고객의 통장 재발급을 처리하던 중 ‘이상 금융 거래’ 정지 안내와 함께 해당 계좌에서 최근 5천만원이 입금된 뒤 100만원 단위로 6회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수상한 여긴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판단, 대포통장 매매 사범 B씨를 검거하며 또 다른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김종득 남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 직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행사

▲담양 죽화경(竹花景·대표 유영길) ‘제16회 대이치 장미축제’=6월7일(토)까지, 개장시간: 오전 9시30분~오후 6시, 담양군 봉산면 유산길 71(유산리 474), 문의: 010-8865-7884.

부음

▲조정순씨 별세, 오성수(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씨 모친상=발인 2일(월) 오전 9시30분 광주 VIP장례타운 vvip실 101호(062-521-4444).